

사회

심야 조사 금지 경찰은 '골머리'

만취 피의자 일단 귀가... 휴대폰 끄고 조사 불응

경찰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심야조사 금지조치를 악용하는 피의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피의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귀가한 뒤 연락을 끊는 등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 사는 이모(45)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4시경 동구 대인동 한 술집에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다 출동한 동부경찰 소속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됐다. 경찰은 자정 이후 심야조사 금지조치에 따라 주·휴대전화번호 등을 적은 뒤 이씨를 귀가조치했으나 이씨는 이후 연락을 끊었다.

이씨의 집까지 찾아간 경찰은 뒤늦게 이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사실을 확인하고 21일 만에 이씨를 찾을 수 있었다. 심야조사를 했다면 이 같은 경찰력 낭비는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관들의 불만소라다.

경찰청은 지난 2005년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인 'Project 1004'를 발표하면서 피의자 조사 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피의자에 대한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검찰 역시 다음해인 2006년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만들어 '심야조사 금지' 조항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신원확인이 된 피의자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 귀가조치한 뒤 추후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피의자들이 이를 악용, 연락을 끊거나 고의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범죄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연말 손님 폭증... 웃돈은 기본 '더블'까지

대리운전 구하기 '전쟁 중'

아르바이트 기사 고용 운전미숙 사고도

김모(34·광주시 서구 농성동)씨는 지난 15일 밤 11시경 서구 상무지구에서 회사 회식이 끝난 뒤 대리운전을 요청했다. 대리운전 콜센터에서는 곧 기사를 배정하겠다고 했지만 30여 분이 흘러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다시 연락을 하자 콜센터에서는 기사가 없다면서 곧 재배정해준다고 했지만 그 후 연락이 끊겼다. 1시간을 추위에 떨던 김씨는 결국 차를 두고 택시로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

연말 회식이 잦아진 최근 대리운전 기사들이 '귀하신 몸'이 되고 있다.

특히 유흥가가 몰려 광주지역 대리운전의 70%를 소화하는 상무지구에서는 1만원의 요금으로는 대리운전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넘쳐나는 취객의 대리운전 요구에 대리운전 기사들은 웃돈 요구를 당연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무지구에서는 대리운전 요청이 집중되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3000원 이상의 웃돈을 얹어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첨단, 하남 등 외곽에 가기 위해서는 '2배'를 줘야 기사를 구할 수 있을 정도다.

대리운전업체가 반쪽 특수를 누리면서 자객 미달 대리운전 기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부 대리운전업체들이 아르바이트 기사를 고용, 대리운전을 맡기고 있지만 운전 미숙 등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직장인 임모(34·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최근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기사가 운전 중 휴대폰 통화를 물론이고, 주차 중엔 아파트 공용 쓰레기통을 들어받기까지 했다"며 "음주운전보다 무서운 대리운전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속칭 '길뱅'(유흥업소 근처

에서 대리운전 요청 손님을 가로채는 행위)이 종종 출현해 대리운전업체의 애를 먹이는 경우도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20여곳의 콜센터와 100여곳의 대리운전회사가 영업중이고 대리운전 기사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 대리운전 회사 관계자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연말을 맞아 요금 때문에 손님과 시비가 붙는 일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들은 프리랜서 기사들의 웃돈 요구에 풀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 회사 소속의 월급제 기사를 고용하는 등 나름의 대안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독거노인 위한 '효충동 빨래방'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명)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이동빨래방 차량을 이용해 이물 세탁을 해주는 '효충동 빨래방사업'에 들어갔다. 동구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이 16일 오전 동구 서석동 김금복(83) 할머니집을 찾아 세탁 봉사를 하고 있다.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촌지교사' 제보 학부모에 250만원 포상

서울시교육청 6건 지급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촌지 명목으로 수수한 현직교사가 있다고 제보한 학부모가 서울시교육청에서 2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비리 공익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계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교사를 교육청에 공익 제보한 학부모 A씨가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받는다.

또 영어전용교실 설치공사의 비리가 드러난 학교,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임 교장, 교직원 식사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하게 한 교장, 무면허 업체와 교실 청소공사를 계약한 학교, 결혼 청첩장을 학부모단체 임원들에게 돌리고 축의금을 받은 교장 등을 신고한 제보자들도 각각 200만~300만원을 받게 됐다.

/연필뉴스

5만원권 위폐 택시비로 사용 여수경찰 2명 영장

여수경찰은 16일 위조 5만원권 지폐를 택시비 등으로 사용한 주모(여·23·여수시 율촌면)씨와 동거남 이모(23)씨 등 2명에 대해 위조통화 취득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 등은 지난 7월 여수시내 한 안물전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생선을 산 뒤 거스름돈을 받아 챙기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위폐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새벽 1시경 여수시 여서동에서 택시비로 5만원권 위폐를 사용하려다 위폐임을 알아차린 택시 기사가 인근 파출소로 차를 몰고 가는 바람에 달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5만원권 위폐 3장을 압수하는 한편, 주씨가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부산의 한 여고생으로부터 위폐 4장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수경찰은 앞서 지난 10월에도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10여차례에 걸쳐 5만원권 위폐를 사용한 남성을 구속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C&그룹 임직원 9명 사전영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6일 임병석 C&그룹 회장의 삼촌인 임갑표(62) C&그룹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9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각종 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대상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연필뉴스

PC방 위장취업해 금고 돈 '슬쩍'

○광주의 한 PC게임방에 위장 취업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1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한모(20·경북 구미시)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30분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 이모(26)씨의 PC게임방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79만원을 몰래 가져갔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위장취업한 지 30분 만에 돈을 훔쳐갔는데, 경찰에서 "돈을 훔치려고 위장 취업했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 해제 정당"

광주지법, 사측 이행 않으면 퇴직일 기준 산정·지급

유사 소송 줄 이을 듯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을 맺고도 회사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약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해제권을 인정한 첫 사례여서 향후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양영희 판사는 16일 전 시내버스 기사 홍모(59)씨가 H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홍씨에게 701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적법한 계약해제 통지에 따라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회사는 원고의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년퇴직한 홍씨는 지난 2006년 10월경 노사 협약 등을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날인했으나,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7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약정 당시 홍씨는 퇴직금 5345만원 중 퇴직전환금 190만원을 제외한 5154만원을 약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1년간 3개월에 한 번씩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회사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중간정산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한 합의 규정이고, 합의에 의해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기존 판결들과 궤를 달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홍씨가 근무했던 H교통에 약정 해제를 통보한 퇴직근로자가 94명에 이르고,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같은 케이스가 많아 소송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대학편입! 김영과 함께

2012 학년도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 /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개강 12월 20일